

한국 기관·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 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

-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녹색기후기금(GCF) 사무총장 면담

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21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(Mafalda Duarte) 녹색기후기금*(GCF)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GCF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.

*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: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'10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(인천 송도에 사무국 소재)

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 이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*(AFoCO, 아포코) 인증기구** 지정 등 한국 관련 기관의 인증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 또한, 고위직,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한국인들이 녹색기후기금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한국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* (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) 아시아에서 기후변화,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 이슈 선도를 위해 '18년에 한국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

** 녹색기후기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증기구를 지정하고, 해당 기관에 자금 지원

녹색기후기금은 한국의 3억불 공여(제2차 재원보충 기간, '24~'27년) 이행 등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 확대에 감사 의사를 표명하였다. 또한, 한국 인증기구(산업은행, 한국국제협력단, SK증권)와의 협력 등 한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은 연례협의를 연1회 정례화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녹색기후기금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.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도익 (044-215-875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수호 (suhlee90@korea.kr)
			연구원 김보영 (bykim117@korea.kr)
			전문관 최서연 (seoyeonchoi16@korea.kr)